

‘사퇴’ 대신 ‘임기 단축’ 표현…개헌 합의 없인 퇴진 불가 의지

박대통령 노림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차 대국민담화의 주요 내용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국회가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 절차를 마련해오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애초 약속까지 어겼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는 제 대통령직 임

모든 혐의 최순실에 떠넘겨

즉각 퇴진 국민 목소리 외면

야권·與 비주류 균열 노려

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범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즉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 총리 추천과 거국내각 구성, 조기 대선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논의해 확정해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원로와 새누리당 친박(전박근혜)계 중진의원들이 제안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대선 일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여야의 ‘당리당락’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사퇴 대신 ‘임기단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면 개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에 넘긴 문제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용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국회의

탄핵 소추 움직임을 저지시키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표면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동력을 약화시키고 담화 해석을 놓고 정치권의 자충지란을 만들어 탄핵안 처리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 됐던 공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선출 문제로 이미 내분을 겪었던 야권은 또 다시 공조가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또 새누리당 비주류 사이에서도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질서있는 퇴진’을 거론했는데 당연히 새누리당 내에선 의견이 갈릴 것”이라며 “친박 측이 이를 빌미로 탄핵을 방해하고 세를 규합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질문 안받고 도망치듯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돌아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녹화 사과·거짓말·책임 떠넘기기…쫓불 민심만 키웠다

세차례 담화 비교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담화가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단순한 사과였다면 두 번째는 검찰 수사 및 특검 수용을 통한 사태 수습 시도, 3차 담화는 임기 단축 카드를 통한 승부수라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대국민 담화 및 사과는 연

설문 사전 유희 의혹을 제기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에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연설문 사전유희 의혹을 일정 부분 시인하며 1분 40초 동안 미리 준비한 476자의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공식 사과를 통해 단순한 국정 농단 사태를 연설문 유희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다. 당시 대국민 사과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을 통해 중계돼 ‘녹화사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두 번째 사과는 지난 4일에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과”, “사죄”, “잠담한 심정”, “자괴감”, “책임 통감”, “용서 구한다”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첫 번째 사과보다 여위가 훨씬 격해졌다. 담화문 발표 시간도 1분 40초에서 9분 3초까지 늘어났고, ‘녹화사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담화의 요지는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별검사 수사로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는 등 쫓불 민심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지난 2차례에 비해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진행됐다. 담화 발표에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됐

고, 눈물을 글썽이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일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처음으로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새누리당 비박진영의 탄핵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 정국에 변수로 작용하는 등 일견 효과를 거두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문이 진정성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쫓불 민심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권 특검 후보 2명 추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세 야당은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의 박영수(64·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두 후보자는 적극적이고 강직한 성품에 통솔력과 돌파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후보자 모두 강력부 검사로 오랜 기간 일했으며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대선 출신인 조 변호사는 ‘강력·조폭 수사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의 강골 검사 조범석의 실존 모델로도 유명하다. 과거 주요 부임지마다 관내 조폭을 소탕해 ‘조폭들이 치를 떤다’

조승식, ‘강골 검사’ 강력·조폭 수사 달인 박영수, 정몽구 법정에 세운 강력·특수통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폭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1990년 서울에서 당대 최고의 조폭 김태춘씨를 검거할 때 현장에서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김씨를 덮친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고항에서 근무할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며 퇴근 후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엄격한 자기관리를 보였다.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2008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개업했다. 검도 6단의 고수이며 색소폰과 볼룸댄스 등 취미 활동에도 조예가 깊다. 아들도 변호사이며 현

재 제이씨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제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중요 대형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강력통·특수통’으로 유명하다.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2002년 서울지검 2차장에 재직할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총수를 재판정에 세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던 2005년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



조승식



박영수

령 혐의를 찾아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외환은행이 정상기보다 낮은 가격에 론스타에 매각된 의혹도 파헤쳤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2012~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지방자치단체 세금납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 특수수사하듯 지자체의 ‘혈세 낭비’를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

12/19, 12/22, 12/25 단 3회! 499,000원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동등번호 제동다 2003-1호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 등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예약비(입금)단,가사/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